

文學碩士 學位論文

『어려운 시절』에 나타난 내재적 개혁성

Intended Reform in *Hard Times*

指導教授 朴 正 吉

2002年 8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英語英文學科

金 起 睦

本 論文을 金起睦의 文學碩士 學位論文으로
認准함.

委員長 朴 玉 善 印

委 員 金 英 喆 印

委 員 朴 正 吉 印

2002年 6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英 語 英 文 學 科

목 차

I. 서 론	1
II. 디킨즈와 빅토리아조 사회상	8
III. 그레드그라인드 : 공리주의	13
IV. 스티븐 블랙폴 : 노동문제	25
V. 씨시와 곡마단원 : 인간다움의 실현	36
VI. 결 론	48
■ 인용문헌	51
■ Abstract	55

I. 서론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는 빅토리아시대의 충실한 기록자이며 비평가로서 민중의 삶 속에 존재하는 가난과 범죄, 교육등과 같은 사회 문제들을 진지하게 진단하고 성찰한 리얼리스트로 알려져 있다. 디킨스는 사회문제를 실감있게 다루되 피상적인 문제제기와 단순한 해결로 시대적 흐름에 안주하는 소설과는 달리 인간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유머와 생명력을 지닌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디킨스 자신이 겪었던 소년시절의 불행과 빈곤의 고통은 사회모순과 부정의 이면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과 통찰로 이어져 작품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창작열의가 뿜어내는 마술과 같은 흡인력은 다양한 삶의 균상을 소재로 하여 더욱 더 진가를 발휘하였으며 그 결과 그는 시대와 계층을 초월한 세기적 소설가가 될 수 있었다.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올리버(Oliver), 니클비부인(Mrs. Nickleby), 그리고 폴(Paul) 같은 인물들은 당대인의 실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으며 따라서 영국인들과 함께 삶을 같이 했던 시대적 대변인들이었다. 이러한 그의 대중적 인기는 당시 샬롯 브론테(Charlotte Brontë)의 『제인에어』(*Jane Eyre*), 윌리엄 섹커리(William Thackeray)의 『허영의 시장』(*Vanity Fair*)등과 같은 작품들의 대중적 성공을 훨씬 능가하는 경제적 부와 명성을 그에게 안겨 주었다. 그리고 19세기 산업화에 잇따른 출판문화의 발전 및 독서의 대중화와 같은 정황과 맞물려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였으며 그의 작품은 기록적인 판매 부수를 이룩하였다.

대중들의 반응에 민감했던 디킨즈는 대중극이나 연재소설 등과 같은 장르를 통해 그들의 삶에 깊이 파고들어 대중문화의 취향을 세심하게 파악했으며 작품에 이를 작품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독자 지향적인 면모로 인해 디킨즈는 당시 찰스 리드(Charles Reade)와 같은 작가 등과 더불어 인기에 영합하는 소설가로 분류되어 지나치게 통속적인 주제에 집착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Philips, 52). 당시 그가 구가했던 대중적 성공은 오히려 예술적 완성도를 저해한다는 평가와 함께 그에게 공감을 표하는 비평가들마저도 디킨즈의 문학적 예술성의 미흡함을 지적하였는가 하면 조지 엘리엇(George Eliot)이나 섹커리의 소설을 더 높이 평가하였다(Ford, 25-37). 그런가 하면 안소니 트롤로프(Anthony Trollope)는 디킨즈를 일컬어 “섹커리 보다 한 단계 낮은 소설가이긴 하지만 그가 이룬 대중적 성공의 부분적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완화된 태도를 보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꼭두각시들에게 그로 하여금 인간성을 외면할 수 있게 해 준 매력을 부여하였는데 이 점이야말로 특이하고 놀라운 그의 역량이었다. 그의 꼭두각시들에게는, 내가 평가하기로는, 섹커리의 해학에 훨씬 못미치는 익살맞음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의 지성에 호소하는 반면 섹커리의 해학은 많은 사람의 지성에 와 닿지 못한다. 디킨즈의 페이스스 또한 인간적이지 않다. 그것은 무대극적이며 멜로드라마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감동시킬 수 있도록 표현되고 있다.

It has been the peculiarity and the marvel of this man's power that he invested his puppets with a charm that enabled him to dispense with human nature. There is a drollery about them, in my estimation, very much below the humor of Thackeray, but which has reached the intellect

of all; while Thackeray's humor has escaped the intellect of many.(75)

이와는 대조적으로 헨리 제임스(Henry James, 221)는 “디킨즈가 위대한 관찰자이며 해학가이기는 하나 결코 철학자일수 없으며 피상적 소설가 중에서만 가장 위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함으로써 디킨즈를 강도 높게 폄하했다. 또한 아놀드 하우스(Arnold Hauser, 123-9)는 “디킨즈에 대해 대중과 밀착됨으로 인해 무비판적인 온정주의와 환상적 크리스마스 철학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하였는가 하면 마가렛 올리펀트(Margarett Oliphant, 149)는 “디킨즈가 중산층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중산계층의 책임만 부르짖는 작가”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디킨즈 작품에 대한 연구의 초점을 이와 같이 사회 체제와 제도 개혁의 신빙성 자체에 지나치게 치중하게 되면 그의 한계점을 문제삼는 비판들은 계속 불가피한 것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그의 소극적 개혁의지나 비전 없는 감상주의, 지나친 대중성과 오락성 같은 결함은 그의 사회개혁 의지를 연구하는데 일방적인 잣대로 작용하여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그의 소설에 대한 관심을 사회문제를 다룬 산업소설로 볼 것인지 인간 중심으로 볼 것인지에 의해 또 다른 논의의 쟁점을 충분히 제공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데이빗 롯지(David Lodge)는 이러한 맥락에서 “디킨즈가 개혁의 초점을 정치, 경제, 사회의 구조보다는 오히려 권력을 소유한 자들의 마음, 영혼의 변화에 의한 개선의지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71). 디킨즈는 사회개혁의 근본을 피상적인 체제 변혁에서 벗어나 인간의 인식변화에 초점을 두어 인간성을 회복하고 점진적인 사회개량을 이루어 내자고 그의 여러

작품에서 일관되게 주장한다. 『올리버 트위스트』(*Oliver Twist*)의 올리버와 『데이빗 코퍼필드』(*David Copperfield*)의 데이비드(David), 그리고 『어려운 시절』(*Hard Times*)의 스티븐 블랙폴(Stephen Blackpool)이나 씨시(Sissy)등 그의 작품들에 등장하는 대다수 인물들은 부조리에 대항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이기 보다 오히려 운명에 순응하고 내면적 인식의 변화를 꾀한 점들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 드러난 사회의 부정적 요소들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것이어서 결국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치료 역시 인간성의 변화에 의해 가능함을 디킨즈는 말하고 있다. 그의 개선의지는 비인간적 세태를 근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나아가 서구 철학이 물질화 함으로써 비롯된 비인도적인 현상에 대한 인간 내면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려운 시절』은 디킨즈의 소설로는 드물게 길이가 짧은 후기소설로서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쟁적 시장원리에 삶을 강요당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그린 사회성이 강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디킨즈 특유의 해학과 풍자의 기법들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지만 노동과 공리주의와 같은 현실사안을 중심으로 당시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어서 다양한 비평적 논의를 이끌어 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 대한 초기 비평가들의 반응은 그다지 열렬한 편은 아니었다. 리처드 심슨(Richard Simpson, 31)은 “디킨즈가 삶의 깊이를 꿰뚫어 보거나 사회적 활동의 밑바닥을 헤아리는 능력을 결코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하였고 조지 기싱(George Gissing, 136)은 지독히도 보잘 것 없는 책이라 혹평하면서 그 “서술방식에서 분명 명백히 훈련되지 못한 지성, 불충분하게 채워진 정신으로 인해 극단적인 순진성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반면에 존 러스킨(John

Ruskin, 47-8)은 “심각한 주제를 희극적으로 다룬 결점을 지적하면서도 중심적인 목적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평함으로써 디킨즈의 성과를 다소 인정했다. 아울러 F. R. 리비스(F. R. Leavis) 역시 “『위대한 유산』에서 보였던 그의 통속적 기질이 이 작품에서는 예외적으로 삶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평한 바 있다(1980, 258).

이 작품은 자기 이권만 찾는 속된 인간상과 사회부조리를 고발하는 한편, 인간의 참된 덕성을 통해 각성을 일으키게 하는 디킨즈의 인간관이 충실하게 투영된 작품이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생활상의 위기를 상징하는 작품의 제목이 시사하듯이 이 작품은 작가의 시각이 민중적이라는 성격에 기초한다. 선과 악으로 지나치게 이분화 되어있는 과장된 묘사에도 불구하고 디킨즈는 이 작품에서 민중적 성격과 결부된 19세기 사회리얼리즘의 충실한 반영을 통해 내적 사회개선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정보다는 감성과 본성을, 인위적인 과학 규칙보다 마음의 통찰력을, 그리고 통계적 수치와 ‘사실’에 얽매인 교육보다 창조적 인간애를 중시했던 디킨즈는 비로소 『어려운 시절』을 통해 “인간의 영혼과 상상력에 대해 직접적인 신뢰와 공감을 표현하고 물질만능의 세태에 대한 정면 공격을 시도한다”(Taine, 331). 그것은 바로 노동과 교육문제, 그리고 공리주의와 같은 현실적 사안을 비중있게 다룸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민중적 공감으로 이어진다. 『어려운 시절』을 완벽히 진지한 예술작품 이라고 극찬했던 F. R. 리비스는 (Leavis, 1970, 259)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의 중요성을 “빅토리아 문명의 비인간적인 면들이 경직된 철학, 즉 비인간적 정신의 공격적 형상화로 인해 키워지고 성역시되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논

평하였다.

그가 제시한 이러한 비전은 변화의 와중에 존재하는 무질서로부터의 새로운 질서를 희구하는데, 이를 위해 “작가 자신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인본적 덕성으로 발전되는 휴머니즘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천명한다(Williams, 1970, 36). 『어려운 시절』에서 반영되는 작가의 내재적 개혁의지는 작중인물들의 도덕적 인식변화의 과정을 통해 표면화되고 이후 구성원간의 활성화된 인간미가 자아내는 희망적인 미래상으로 발전한다.

그가 상정한 이와 같은 이상적 인간의 면모와 조건을 파악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매우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물론 19세기의 문화적 배경은 현대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으며 작품을 보는 관점에서조차 지금의 상황과 매우 다를 것임은 간과 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의 현대인 역시 “경쟁적 개인, 자율성 등의 이념이 더욱 더 원자화되어 인간의 소외가 심화”되고(Peters & Marshall, 21-22) 이기적인 개인주의로 인한 갈등이 확대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때 작품이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핵심과 근본을 인간내부에서 찾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디킨즈의 강렬한 의지가 통찰력 있게 반영된 『어려운 시절』의 연구는 분명 물질화 되어가는 지금 사회에 있어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따뜻한 인간애를 갈망하는 작가의 휴머니즘적 신념은 시대적 상황에 국한됨 없이 충분한 영속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본질적인 측면을 다루는 것이므로 또 다른 문학적 관점과 작품 해석의 정당성을 제공할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어려운 시절』이 사회문제 소설로서 보다는 인간성회

복과 내적 인식변혁을 꾀한 작품인 것에 주안점을 두고 디킨즈가 제시하는 삶의 가능성과 휴머니즘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이 소설의 주제에 접근해 가고자 한다. 제 2장에서는 『어려운 시절』이 진단하고 있는 19세기 영국산업사회의 배경에 대해 고찰해 본 후 제 3장에서는 시장의 논리가 파생시킨 공리주의에 의해 상실 되어 가는 인간성을 주인공 그래드그라인드(Gradgrind)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다. 제 4장에서는 자본주의의 공장제 생산 메카니즘에 의해 도구로 전락해 버린 노동자의 소외를 스티븐(Stephen)을 포함한 주요인물들을 통해 분석해 보고 제 5장에서는 씨시와 곡마단원들의 삶을 통해 실제로 발현되고 있는 도덕적 인식 변화의 과정이 작가의 내적 개혁성과 어떻게 결부되어 이상적 인간상의 구현에 이르는지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Ⅱ. 디킨즈와 빅토리아조의 사회상

19세기 영국의 빅토리아시대는 중세 봉건적 질서의 이탈이 완성되고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하던 변혁의 시대였던 만큼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안고 있던 시기로 요약할 수 있다. 당시 최초의 기차를 보고 중세적인 것들은 영원히 가버렸다고 한탄했던 메튜 아놀드(Matthew Arnold)와 당대를 전환의 시대라 특징지었던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말이 시사하듯 이 시대는 역사상 가장 확연히 구분되는 전환기였다. 생산 기술상의 혁신 및 물질적 풍요와 함께 사회·경제 전반의 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산업혁명은 그후 철도와 통신시설의 발달로 더욱 더 가속화되었다. 또한 사회와 여러 사회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사람들이 경험하는 변혁의 물결은 엄청난 것이었다.

이러한 기술혁명은 기존의 생산체계의 본질을 모든 측면에서 바꾸어 놓았다. 과학과 기술의 진보는 부의 증대와 더불어 인류의 진보에 대한 낙관적 확신을 심어준 반면 자본주의 경제적 이념에 의한 부르주아의 가혹한 착취는 인간의 기계화와 함께 전통문화의 가치를 파괴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가장 취약하여 고통을 직접적으로 입은 계층은 당연히 노동자였다. 특히 공장제 생산모델은 생산을 기계화하고 교통의 발달을 촉진하여 노동자를 통합시켰으나 동시에 분업과 실업으로 인해 노동자를 분열시켰다.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기계에 밀려난 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도구로 전락해 버렸다.

빈곤에 허덕이던 노동자들은 제도적 불합리에 항거하여 러다이트(Luddite)와 같은 운동을 벌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집단 쟁의를 무력화시키는 단결금지법(Anti-Combination)이 시행되어 노동여건은 더욱 더 악화되었다. 그 후 선거법개정안이 제출되어 끈질긴 당쟁 끝에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이 제도는 공업중심의 북부지방에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중상류 계층의 선거권만을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배층의 착취에 대한 근거를 법제화 한 것에 불과하였다.

한편,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골자로 제정된 구빈 수정법(New Poor Law)은 노동조건을 유례없이 까다롭고 잔인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빈민을 사회악적 존재로 생각하며 빈민문제에 적자생존의 원리를 적용하고 오직 공장제 생산방식의 능률과 합리성만을 강조한 법으로써 이로 인한 노동자의 처지는 더욱 더 심각해졌다. 이런 혹독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정부를 향한 정치적 쟁의를 시도하였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차티스트 운동(Charterist Movement)이다. 전 유럽의 혁명적 분위기로 확대된 이 민중운동은 세 번에 걸쳐 570만 명의 청원 서명을 모아 런던에서 대청원 시위운동을 시도하였음에도 오히려 지배층은 보다 엄격한 규율로서 압제를 더욱 강화했다. 결국 시위는 무력에 의해 억제되고, 청원 역시 부결되었다. 결국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재건의 노력은 헛수고로 돌아갔으며 자유주의의 기운을 타고 시도되었던 여러 개혁의 움직임에 의한 노동자들의 권익과 여건 개선의 기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산업혁명기의 사상적 근간으로 정치, 경제 등의 여러 사회제도의 민주적

개혁에 크게 이바지한 공리주의 사상은 당시 중상류 계층의 윤리적 가치관으로 작용하였으나 하층 계급에게는 매우 비정한 것이었다. 공리주의 이론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의 근간이 되어 사회 제 분야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으며 자유방임(Laissez-faire)주의와 영합하여 시장원리의 경제성을 옹호하였다. 그러나 이 사상은 산업경제가 파생시킨 무절제한 자유경쟁으로 인해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을 끝내 치유하지 못한 채 단지 계산과 합리성에만 집착한 가장 사악한 가치체계로 전락해 버렸다(Dickens, 1938, 146). 칼라일(Carlyle)은 인간의 ‘영혼’을 앗아간 공리주의 풍조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의 율법은 ‘최대 행복의 원리’, 의회의 편의’가 되었다. 우리의 하늘은 단지 천문학적인 시간의 척도로서 망원경으로 과학을 쏘고 감상을 쏘는 표적으로서 우리의 머리위에 덮고 있다. 우리 시대의 말로, 그리고 존슨의 말로 한다면 인간은 ‘영혼’을 잃어버렸다.

God's Laws become a Great-Happiness Principle, a Parliamentary Expediency: the Heavens overarch only as an Astronomical Time-Keeper; a butt for Herschel-telescopes to shoot science at, to shoot sentimentalities at: in our and old Johnson's dialect, man has lost the 'soul' out of him.(141-142)

이러한 비정한 시기에 봉착한 많은 지식인들은 심각한 현실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바람직한 처방을 제시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이들 지식인들의 반응은 진지하고 열성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서 상당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가령 “토마스 머컬리(Thomas Macaulary)의 자

유방임주의는 무정부상태에 대한 정당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적 처방이 되고 말았다”(Babington, 72). 또한 메튜 아놀드의 경우에도 “『문화와 무정부주의자』(Culture and Anarch)에서 시와 비평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이 노동운동에 대한 계층적 편견을 드러내는 지적 엘리트주의로 흐름으로써 추상적인 대안에 그치고 마는 한계를 드러냈다”(Arnold, 142). 칼라일로부터 자극 받았던 벤자민 디스레일리(Benjamin Disraeli), 찰스 킹슬리(Charles Kingsley) 그리고 엘리자베스 가스켈(Elizabeth Gaskell)등의 이른바 당시 ‘사회문제 소설가’들 역시 실제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고충의 묘사를 회피하여 칼라일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동시대 작가 찰스 디킨즈 역시 중산층 작가로서의 부분적인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긴 하지만 뛰어난 “작가적 재능으로 산업현장의 기계화된 혹독한 노동환경을 좀더 현실적이고 밀도 있게 묘사했다”(Sussman, 68). 특히 당시 “산업주의로 인해 발생된 인간소외에 대한 깊은 성찰과 그 회복에 대한 갈망은 도덕적 힘과 풍부한 일관성을 이룬 작품구조아래 성공적으로 투영되고 있으며 그것은 전술한 작가들의 한계를 극복한 확연한 차별성을 지녔다”(Kettle, 1953, 146). 그의 작품 중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대체로 도시 소시민층으로 가게 점원이나, 교사, 공장인부들과 같이 가난하고 천대받는 계층을 포함했다. 디킨즈는 이들의 관심사를 작품의 소재로 삼아 참다운 인간미와 동정을 통한 사회 개선의 성취를 이룩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자본주의적 생산체제를 갖춘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은 디킨즈 생존 당시에

절정을 이룬 만큼 그의 작품이 다루는 모든 주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그는 주류에서 벗어난 인물을 통해 사회현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진단하여 사회적 모순을 파헤치는데 탁월한 식견을 발휘하여 “사회적 진화과정에 대한 예리한 분석가이자 지적 반항아”가 될 수 있었다(Kettle, 1982, 224). 디킨즈가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할 만한 작가로 꼽히는 이유는 당대현실의 단순한 사실적 묘사로 그친 게 아니라 사회적 병폐를 재검토하고 그 본질을 비판적으로 통찰하는데까지 나아갔기 때문이다.

Ⅲ. 그레드그라인드 : 공리주의

『어려운 시절』에서 디킨즈가 중점적으로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공리주의 철학이다. 계산적 수치와 합리성의 원칙을 강조하여 영국 빅토리아조 시대의 정신적 주류를 이룬 공리주의 철학은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코크타운(Coketown)의 암울한 이미지를 자아내는 근원이기도 하다. 인간을 경제적 단위로만 생각하여 비인간성을 조장하는 이 공리주의는 토마스 그레드그라인드(Thomas Gradgrind)를 통해 다루어진다. 그가 신봉하는 ‘사실’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제외할 뿐만 아니라,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라도 공리주의 원리에 어긋나면 일체 배격하는 편협한 기준에 의해 설정된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 “능률과 합리성의 증진에 기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인간 경험의 모든 것은 무시된다”(김종철, 131).

상상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그레드그라인드의 학교로 파견 나온 장학사가 학생들과 문답하는 장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말 그림이 그려진 벽지와 꽃 그림이 그려진 카펫을 희망하는 친진한 학생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일축해 버린다.

“우리는 사람을 사실의, 사실만의 인간으로 만들 사실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실위원회를 조만간에 갖기를 희망한다. 상상이란 단어를 완전히 버리도록, 상상과 자네는 아무 관계도 없으니까, 사용할 물건이든 사실과 상충하는 물건이든 간직하면 못써, 꽃 위를 실제 걷지는 않으니까 카펫에 그려진 꽃도 밟게

할 수 없는 거다.”

“We hope to have, before long, a board of fact, composed of commissioners of fact, who will force the people to be a people of fact, and of nothing but fact. You must discard the word Fancy altogether. You have nothing to do with it. You are not to have, in any object of use or ornament, what would be a contradiction in fact. You don't walk upon flowers in fact; you cannot be allowed to walk upon flowers in carpets.”(6)

오로지 ‘사실’만을 강조하는 철학은 상상과 창조적 개념의 존재자체를 용인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과장된 객관성에 기초한 그레드그라인드의 ‘사실’ 철학은 결과적으로 주변인물이 겪게되는 비극적인 결말에 원초적인 구실을 제공하여 인간성 상실에 대한 요체가 된다. 생명력을 상실한 채 평생동안 공리주의의 반려자로 예속되었던 그레드그라인드 여사(Mrs. Gradgrind)가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고, 수치적으로 완벽했던 그의 딸 루이자(Louisa Gradgrind)의 결혼생활이 끝내 과탄에 이르게 된다. 또한 “인간성은 그저 간단한 산술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2)공리주의 교육은 그의 아들 톰(Thomas Gradgrind Jr.)을 속물적 인간으로 만들어 결국 타락하게 하였다. 디킨즈는 이와 같은 비극상의 점차적인 표출을 통해 그레드그라인드가 표방하는 ‘사실’ 교육의 잔혹한 실체를 그리고 있다.

공리주의 교육의 왜곡은 현상적인 것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인간가치의 미묘함과 인본주의적 도덕성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정신의 창조적 자발성에 대한 억압은 필연적으로 각 인물의 소외와 상실감을 초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작품의 전반에 표현된 상징과 주제적 정신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공리

주의가 주장하는 빛나간 객관성과 기계적 논리의 파급효과는 그레드그라인드의 가정과 학교라는 제한된 영역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코크타운이라는 산업체제와 긴밀하게 연관된다. 생산에만 집착한 어두운 세계인 코크타운의 이미지는 인간애를 상실한 그레드그라인드의 황폐한 의식을 대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디킨즈는 산업도시 코크타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붉은 벽돌의 도시, 만약 공장 연기와 재가 허락했다면 붉은색이었을 벽돌로 이루어진 도시였다. 그러나 사실은 야만인의 물감 칠한 얼굴처럼 부자연스러운 붉음과 검정의 도시였다. 그것은 기계와 높은 굴뚝의 도시였는데, 그 높다란 굴뚝으로부터 연기의 뱀이 끊임없이 영원히 영원히 기어 나와서 결코 풀리지 않았다. 도시 안에는 검은 운하가 하나 있고 고약한 악취를 풍기는 염료 때문에 자줏빛으로 흐르는 강이 하나 있었다. 창으로 꽂찬 거대한 건물더미가 있는데 거기서는 하루 종일 덜컹거리고 덜덜 떠는 소리가 들렸고, 우울한 광증에 사로잡힌 코끼리의 머리 같은 증기기관의 피스톤이 단조롭게 상하운동을 했다. 서로 똑같이 닳은 큰 길이 몇 개 있었고 한층 더 닳은 작은 거리가 많이 있었다. 그 거리에는 마찬가지로 꼭 닳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포도에서 같은 소리를 내며 같은 일을 하기 위해 출퇴근하면서 살고 있었다. 그들에게 매일은 어제나 내일이나 꼭 같았고 매해는 작년이나 내년이나 꼭 같았다. 코크타운의 이런 속성은 그 도시를 지탱하는 노동과 대체적으로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었다.... 도시의 유형적인 면 어디나, 무형적인 면 어디나 사실, 사실, 사실뿐이었다. 맥초우컴차일드 학교도, 디자인 학교도, 주인과 고용인 사이의 관계도 온통 사실뿐이었으며 산부인과병원에서 공동묘지에 이르기까지도 사실만이 있었다. 그리고 숫자로 서술할 수 없거나 가장 싸게 사서 가장 비싸게 팔 만한 것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 존재해서도 안되는 거였다. 영원히. 아멘.

It was a town of red brick, or of brick that would have been red if the smoke and ashes had allowed it; but as matters stood it was town of unnatural red and black like the painted face of a savage. It was a town of

machinery and tall chimneys, out of which interminable serpents of smoke trailed themselves for ever and ever, and never got uncoiled. It had a black canal in it, and a river that ran purple with ill-smelling dye, and vast piles of building full of windows where there was a rattling and a trembling all day long, and where the piston of the steam-engine worked monotonously up and down like the head of an elephant in a state of melancholy madness. It contained several large streets all very like one another, and many small streets still more like one another, inhabited by people equally like one another, who all went in and out at the same hours, with the same sound upon the same pavements, to do the same work, and to whom every day was the same as yesterday and tomorrow, and every year the counterpart of the last and the next. These attributes of Coketown were in the main inseparable from the work by which it was sustained; Fact, fact, fact, everywhere in the material aspect of the town; fact, fact, fact, everywhere in the immaterial. The M'Choakumchild school was all fact, and the school of design was all fact, and everything was fact between the lying-in hospital and the cemetery, and what you couldn't state in figures, or show to be purchaseable in the cheapest market and saleable in the dearest, was not, and never should be, world without end, Amen.(19)

이와 같이 코크타운으로 형상화 되어있는 그레드그라인드의 기계적이고 메마른 의식은 작중인물 모두에게 공리주의 철학의 어두운 실체를 느끼게 만든다. 그레드그라인드의 계산적 관념은 그녀의 딸 루이자에게 30여살이나 연상인 자본가 바운더비(Bounderby)와 결혼할 것을 권장할 정도로 지나친 합리성에 물들어 있다. 또한 공리주의 철학의 또 다른 희생자인 그의 부인 그레드그라인드 여사는 쇠약한 심신으로 항상 상실감에 젖은 채 희망 없는 삶을 보낸다. 뿐만 아니라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에 가장 훌륭하게 교육받은 모범생 빗쩌(Bitzer)와 톰 역시

결말의 타락상을 통해 공리주의 철학에 철저하게 구속되었던 희생자들이다. 그 래드그라인드의 학교에서 ‘사실’만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상상력 결핍을 디킨즈는 다음과 같이 풍자하고 있다.

그래드그라인드의 자식들은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하는 순진한 노래를 배운 적이 없었다. 경이로움이란 걸 모르는 이 아이들은 다섯 살 때 오웬 교수나 되는 것처럼 대응좌를 세밀히 조사했고 기관수처럼 찰스의 마차를 운전했다. 이 꼬마들은 들판의 소를 보고도 옛기름을 삼킨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를 문 개를 뒤틀린 빨로 박아버린 동요속의 그 유명한 소나, 톱 섬을 삼켜버린 한층 더 유명한 소를 연상하지 못했다. 그래드그라인드의 자식들은 이런 유명한 짐승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 소라고 하면 몇 개의 위를 가지고 반추하는 네발 가진 초식동물로 배웠을 뿐이다.

No little Gradgrind had ever learnt the silly jingle,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No little Gradgrind had ever known wonder on the subject, each little Gradgrind having at five years old dissected the Great Bear like a professor Owen, and driven Charles's Wain like a locomotive engine-driver. No little Gradgrind had ever associated a cow in a field with that famous cow with the crumpled horn who tossed the dog who worried the cat who killed the rat who ate the malt, or with that yet more famous cow who swallowed Tom Thumb; it had never heard of those celebrities, and had only been introduced to a cow as a graminivorous ruminating quadruped with several stomachs.(8)

상상과 창조성의 가치를 일체 배격하였던 형식과 합리성의 원칙들은 애초에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학교 교육에서 조장되었고 그 폐해가 인물의 인간성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에 존재하는 이런 비인간성은 빗썸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모든 죄상이 폭로되어 도망 다니는 톰을 잡아 바운더비에겐 넘겨줌으로써 실리를 챙기려는 비정한 이기주의자이다. 그는 옛날 그의 스승이었던 그레드그라인드가 그의 아들 톰을 놓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외면해 버린다.

“선생님이 이토록 근거없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옛날의 학생이 논쟁하는 투로 대꾸했다. “돈을 내고 배웠으니 그건 거래였고, 졸업을 했으니 거래는 끝난 셈입니다.

“I really wonder, Sir,” rejoined the old pupil in an argumentative manner, “to find you taking a position so untenable. My schooling was paid for; it was a bargain; and when I came away, the bargain ended.”(258)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단지 거래로 보는 빗썸의 비정함은 분명 그레드그라인드의 산술적 공식과 ‘사실’만을 강조한 황폐한 교육이 뿌린 씨앗의 수확임에 틀림없다.

한편, 이러한 공리주의의 합리성은 산업자본주의의 경제적 합리성에도 정확히 대응하고 있다. 즉 공리주의가 무한정한 이익추구를 정당화하는 자유방임주의와 합세하여 시장의 원리와 타협 하게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체제적 모순을 등에 업고 착취를 정당화하는 변질된 공리주의의 경제논리가 작용하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디킨즈는 당시 자본가의 이기적 상업성을 극명하게 상징화하기 위해 조사이어 바운더비(Josiah Bounderby)를 창조하고 있다. 그는 인간성이 상실된 속물적 인간으로 그려진 인물이다. 배금주의의 화신으로 등장하는 그는 돈으로 무엇이든 지배하려는 욕망에 가득차 있으며 어머니를 버리고

자신의 출신을 속인 채 위장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특히 디킨즈는 술이 적은 바운더비의 머리카락을 “떠벌리는 입김에 빠졌고, 남아 있는 머리카락도 허풍에 끊임없이 훑날려 무질서하게 엉켜 있다”(17)라고 묘사하여 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이는 자기과시와 물질적 성공에만 관심을 쏟는 바운더비의 정체를 위선적이고 허풍적인 인물로 그려 그의 정체를 풍자한 것이다.

바운더비는 그의 금전적 이해관계가 공리주의의 계산성이 맞물려 산업사회의 극단적 인물로 형상화된다. 특히 디킨즈는 지배층이 부르주아계급을 포섭함으로써 그들의 유지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새로운 지배형태의 성향을 포착하여 작품에 반영하고 있다. 그 결과 작가는 바운더비로 대표되는 부르주아의 이기적인 경제성을 공리주의 철학에 연관지음으로써, 전략적 연대를 시도하려고 했던 지배구조의 심층적 분석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어려운 시절』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빅토리아조식 타협(Victorian Compromise)(백낙청, 51)과 공리주의의 혼합은 추악한 이기주의의 한 단면을 더욱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 성공하였다”(Leavis, 1970, 253).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공리주의는 분명 하나의 견고한 사회사상으로 서 당대 산업체제를 밑받침하는 철학체계였을 뿐만 아니라 빅토리아시대의 지식인들에게 지배적인 판단기준이었다. 또한 영국사회의 전근대성을 합리적 기준에서 재검토하여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현하고자한 노력이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공리주의가 왜곡의 여지를 미연에 차단하고 올바르게 작용하기도 했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는 당시 사회문제의 개선을 위해 일단의 노력을 보였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그라드그라인드류의 지식인들이었다는 결

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레이먼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 1958, 105)는 “그라드그라인드를 단죄함으로써 많은 양의 사회개혁 뿐만 아니라 산업화를 촉진시켰던 여러 긍정적인 제도혁신까지도 디킨즈가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존 할로웨이(John Holloway, 160, 166)는 “디킨즈가 19세기초의 경제적 사회적 통계수치에 대한 순진한 열정주의를 공리주의라고 오해하여 편향된 적대감으로 사회적 비판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소설의 목표가 공리주의나 정치 경제학이 아닌, 공리주의의 단면과 정치경제학의 일부 결과만 대상으로 할 뿐”이라고 말한 바나드(Barnard, 1974, 81)의 비판도 상당한 타당성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에 앞서 당시 공리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사회개혁의 실례인 선거법제도나 개정 구빈법과 같은 실제적 사안을 바라보는 디킨즈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디킨즈는 시종일관 그릇되고 왜곡된 사회제도와 모순적 이념체계를 작품의 소재로 삼아 비판해 왔다. 예를 들어 그는 개정 구빈법 정책으로 인한 비참한 서민들의 실태를 『올리버 트위스트』에서 파헤쳤고 『어려운 시절』에서 역시 관련 정책을 추진했던 공리주의자들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공리주의 개혁가들에 대한 디킨즈의 태도는 그의 친구 찰스 나이트(Charles Knight)에게 보낸 편지에 잘 드러나 있다.

나의 풍자는 숫자와 평균치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보는 사람 — 이 시대에 가장 사악하고 큰 악의 대표자인 사람 — 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사, 당신도 이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My satire is against those who see figures and averages, and nothing else
— the representatives of the wickest and most enormous vice of this time
— Bah! What have you to do with these?(Holloway, 162)

디킨즈는 이와 같이 형식과 논리적 비인간성으로 왜곡된 공리주의의 본질을 비판하고자 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절』을 통해 그가 진실로 의도했던 비판의 초점은 국회의원이인 그레이그라인드와 같은 지식인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지양한 채 탁상공론에만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겨냥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형식적 합리성에만 치중하여 사회부조리의 본질을 외면해 버리는 변질된 공리주의자들의 실상을 꼬집는 것이 디킨즈의 진정한 비판 의도였다. 이것은 개혁가들의 건설적인 노력을 간과함이 아니라 공리주의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레이그라인드와 같이 산술적 판단기준으로 문제를 단순히 처리해 내는 무책임함에 대한 공격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리주의에 대한 디킨즈의 비판은 좋았던 옛날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허황된 것이 절대 아니다. 또한 “일면적인 합리성의 폐해를 단순히 인간성에 호소하는 방식을 통해 비판하였던 19세기 영국의 대다수 문인들처럼 낭만적이고 인본적인 전통에 치우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장남수, 49).

디킨즈는 그레이그라인드가 추구하는 사회문제의 해결방도를 모색하고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는 ‘푸른 방’을 통해 개혁가들의 당시 빛나간 합리성을 문제삼고 있다. 푸른방에 대한 묘사이다.

그의 방은 푸른 표지의 의회보고서들이 가득한 푸른 방이었다... 마술에 걸린

바로 이 방에서 가장 복잡한 사회문제가 계산되고 정확한 합계가 나오며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마치 천체관측소가 창문하나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듯이, 그리고 그 안에는 천문학자는 별들의 우주를 펜과 잉크와 종이만으로 배열할 수 있다는 듯이, 그래드그라인드 씨는 그의 관측소 안에서 자기 주변에 들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길 하나 던질 필요 없이 그들의 운명을 석판 위에 결정짓고, 한 개의 작고 더러운 스폰지 조각으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 낼 수 있었다.

His room was quite a blue chamber in its abundance of blue books In that charmed apartment, the most complicated social questions were cast up, got into exact totals, and finally settled - As if an astronomical observatory should be made without any windows, and the astronomer within should arrange the starry universe solely by pen, ink, and paper, so Mr. Gradgrind, in his Observatory, had no need to cast an eye upon the teeming myriads of human beings around him, but could settle all their destinies on a slated, and wipe out all their tears with one dirty little bit of sponge.(85)

한 장의 더러운 스폰지로 모든 이의 눈물을 닦으려는 지엽적 논리는 편협한 합리성의 위험을 날카롭게 빗대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그래드그라인드의 가치관은 본질을 외면한 채 모든 현실을 대체해버리려 하는 극단성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곧 “올바른 정의와 양심의 인도적 구현으로 비롯되는 개혁이 아니라 오로지 능률과 완전한 정치, 경제성의 인식 확립”에 지나지 않는다(Thompson, 341). 디킨즈가 일관되게 이슈화하고 풍자했던 이러한 빗나간 공리주의는 극단적인 합리성에 치우쳐 버린 정책의 기만으로 풀이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비록 정책적 노력들이 적극적이라 하더라도 생지옥 같은 코크타운을 단지 견딜만한 곳으로 바꾸는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Craig, 118).

그렇기에 『어려운 시절』에서 디킨즈가 의도한 바는 결국 공리주의자들의 열성적인 개선의지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의견의 수렴을 거부함으로써 인간을 기계적인 틀에 구속하여 고통을 가중시키는 개혁활동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정리 할 수 있겠다. 그 결과 디킨즈는 “공리주의의 주된 정신과 내포된 위험을 올바르게, 성공적으로 공격”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Gold, 198).

이러한 디킨즈의 의도는 바람직한 업무를 수행하려던 당시 공리주의자들의 사회개혁의 시도 자체에 대해서는 그가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당시 개혁의 근간이 되었던 공리주의 철학은 바운더비나 코크타운과 같은 비인간성과 친화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온전한 산업체제를 강화하는 범위 이상으로 확대되어 인간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디킨즈의 생각이었다. 디킨즈의 태도가 공리주의 자체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도 정작 그 표상인 그레드그라인드에 대해서는 바운더비와 하트하우스(Harthouse)와 달리 그리 냉혹하지가 않다는 점은 바로 이 부분을 강렬히 시사한다. 작가는 그레드그라인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레드그라인드씨는 매우 엄격하긴 하지만 바운더비씨처럼 거친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그의 성품은 불친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수년전에 그의 성품과 조화를 이루는 수학에서 큰 실수만 범했다라면 정말이지 그는 매우 친절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Mr. Gradgrind, though hard enough, was by no means so rough a man as Mr. Bounderby. His character was not unkind, all things considered; it might have been a very kind one indeed, if he had only made some round mistake in the arithmetic that balanced it, years ago.(35)

위와 같이 그레드그라인드는 공리주의 철학을 생활신조로 삼아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이기적인 상업성에 동요되는 인물로 그려져 있지는 않다. 곡마단의 고아 씨시를 집으로 데려와 키우는 인정미는 그가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사람임을 나타낸다. 또 이기적인 바운더비가 아무런 동정도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그레드그라인드는 그의 계산적 철학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육과는 거리가 먼 굳은 신념의 소유자로 그려진다. 이러한 잠재된 인간적인 면모로 인해 그는 이후에 겪게되는 총체적인 비극을 통해 자신의 신조가 편협한 철학임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깨닫게 되며 가장 극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디킨즈가 이와 같이 공리주의를 비판하고 귀족계급이나 자본가계급을 냉혹하게 다루면서 인간적인 면모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작가 자신이 자율적 도덕성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 공리주의는 목적론적 윤리의 한 형태이지만, 내면적 윤리에 의해 검증 받은 객관성을 띠게 될 때 외면적인 도덕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디킨즈의 희망적 가치관을 읽을 수 있다.

IV. 스티븐 블랙풀 : 노동문제

『어려운 시절』은 자본주의의 또 다른 축인 노동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루면서 사회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을 높이 평가하는 이들도 대부분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미흡함을 인정하면서(Leavis, 1980, 276) 디킨즈의 사회인식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노먼 페이지(Norman Page, 14)는 “디킨즈가 코크타운을 중심으로 그린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가 지나치게 어둡고 폐쇄적으로 묘사되어 음울한 사회주의를 조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문제를 다룸에 있어 개별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은 스티븐 블랙풀(Stephen Blackpool)이다. 그러나 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노동문제에 대한 작가의 의지를 돋보이게 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당시 노동자의 전형으로 형상화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분분하다. 기싱(242)은 스티븐에 대해 “빵과 권리를 얻고자 투쟁하는 노동자의 대표적 인물이라고는 절대로 볼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작가의 한계를 꼬집었다. 그런가 하면 F. R. 리비스는 스티븐을 일컬어 “지나친 감상성을 드러내었으며 작품 여러 부분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1980, 276)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스티븐이 당시의 심각한 문제를 대처해 나갈 만한 실질적 대안이 되지 못함은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인 듯하다. 그리고 생산환경에서 인물을 직접 다루기를 회피하고 주변상황을 통해 노동문제에 접근한 것은 작가가 노동자들의 움직임을 끝내 무시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또한 스티븐이 사

모하는 레이첼(Rachael) 여동생의 산업재해를 출판 막바지 단계에서 삭제했던 사실들은 디킨즈가 노동문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에 더욱 설득력을 실어주고 있다. 이러한 연유에서 조지 오웰(George Orwell)은 “디킨즈가 정작 그의 작중인물들이 종사하는 직업이 정작 무엇이며 그들이 일하는 공장에서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301)고 말하면서 그의 인식 부재를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스티븐을 묘사함에 있어 “구체적인 노동환경이나 공장내부의 실상에 대해 소홀히 한 것은 그를 정직한 노동자의 특징적 예라기 보다 단지 극적으로만 완벽한 모습으로 보이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Ford, 1972, 47).

인물설정에 있어 나타나는 디킨즈의 이런 모호한 처리는 그의 인식 부재에 대한 비판가들의 의견에 더욱 더 타당성을 부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작가의 이러한 처리가 단순히 그의 능력한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작가로서의 현실적 인식을 통해 의식적으로 그렇게 작품화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실제상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디킨즈가 프레스톤 파업(Preston Strike) 답사 후에 발표한 논설 「파업에 대하여」(On Strike)은 이 물음에 대한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다(Dickens, 1987). 여기에 표현된 그의 심경과 목격담은 실제로 『어려운 시절』 집필의 기초가 되었고, 노동운동에 대한 그의 인식변화에 큰 계기가 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그가 목격한 프레스톤의 노동쟁의 현장은 예상과 달리 매우 평온한 분위기에서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고용주들에 대한 노동자의 증오심이 그리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킨즈는 노동운동에 대한 긍정적 확신과 지속적인 개혁의지를 가지게 되

었다고 술회한 바 있다. 그때의 느낌을 디킨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들의 거대한 무리가, 이 모든 자질들은 엄연히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고 잠시라도 생각한다는 것이 내게는 불가능하게 여겨졌다.... 나는 그들의 과오가 일반적으로 정직한 과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가진 악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선에 의해 지속된다는 깊은 확신을 간직한 채 그곳을 떠났다.

To hold, for a minute, that the great mass of them were not sincerely actuated by the belief that all these qualities were bound up in what they were doing, and that they were doing right, seemed to me little short of an impossibility..... I left the place with a profound conviction that their mistake is generally an honest one, and that it is sustained by the good that is in them, and not by the evil.(Dickens, 1938, 291)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어려운 시절』에서 그의 낙관적 확신을 접어두고 실제적인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시선을 끄는 부분이다. 그 예로 디킨즈는 노동운동가 슬랙브리지(Slackbridge)를 배타적인 독재자의 이미지로 만들고 있다. 그는 양심적인 노동자 스티븐을 노동집회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격리시키고 추방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한다. 분명 이것은 노동자의 면모를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이기적 집단으로 설정하는데 기여할 뿐이다. 또한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 역시 동료의 어려움에 인식할 뿐 아니라 군중심리에 의해 맹목적으로 추종만 하는 우매한 군중의 이미지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어려운 시절』은 작품이 표방하는 주제 자체를 반박하는 오류

를 범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Barnard, 79).

디킨즈의 이와 같은 실제경험의 왜곡은 차티스트운동 이후 보인 노동운동의 활성화가 노동자의 권익신장 면에서 전혀 기여하지 못했던 한계의 인식에서 일단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시범사례로 간주되는 “프레스톤 파업은 무려 8개월 동안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수만 증가하였을 뿐 노동자들의 처우 향상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Williams, 1975, 107). 이러한 노동운동의 패배는 당시 소규모로 시도되던 노동운동의 보편적인 결과이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디킨즈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요구를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요구가 관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될 뿐이라는 현실의 한계를 체감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그는 결국 노동조합을 통한 개선의 시도에 낙관적인 기대를 걸 수 없었다.

노동자의 권리쟁취와 처우개선을 위한 쟁의의 움직임에 대해 당시의 귀족들은 노동자들이 황금수저를 갖고 자라수프와 사슴고기를 먹겠다며 억지를 부린다(57, 61)는 식으로 비난한다. 이러한 모습은 귀족적 체면과 허식에 사로잡힌 스파시트부인(Mrs. Sparsit)과 빗짜가 주고받는 대화에 잘 반영되고 있다.

“연합한 공장주들이 그 따위 계급의 결속을 허용하다니 몹시 유감이군.” 스파치트 부인은 엄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그녀의 코를 더욱 매부리코로, 눈썹은 더욱 반원형으로 만들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부인,” 빗짜가 말했다.

“공장주들은 서로 연합해서 다른 일손과 연결된 일손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반대해야 해.” 스파치트 부인이 말했다.

“그렇게 해왔지만 오히려 실패했지요.” 빗짜가 대답했다.

“.... 다만 일손들은 제압되어야 하고 이 일을 딱 부러지게 수행할 때가 도래 했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지.

“It is much to be regretted,” said Mrs. Sparsit, making her nose more Roman and her eyebrows more Coriolanian in the strength of her severity, “that the united masters allow of any such class-combination.”

“Yes, ma’am,” said Bitzer.

“Being united themselves, they ought one and all to set their faces against employing any man who is united with any other man,” said Mrs. Sparsit.

“they have done that, ma’am,” returned Bitzer; “but it rather fell through, ma’am.”

“.... I only know that these people must be conquered, and that it’s high time it was done, once for all.”(102)

이렇게 노동운동은 이해하기에 앞서 제거되어야 할 문제라고 일축해버리는 스파 시트 부인의 반응은 민중의 창의성을 제약하고 갈등을 증폭시킨 빅토리아시대 상류층의 자연스런 태도였다. 귀족계급의 이러한 비논리적 주장은 필연적으로 신흥 부르주아 바운더비와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전략적 연대를 통해 더욱 더 강화하고 있음은 이미 살펴 본 바이다. 그 결과, 이들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계급에 대한 차이를 더욱 더 명분화, 합리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 작가는 자신이 가졌던 긍정적 확신이 한낱 이상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인식과 함께 스티븐을 통한 노동운동의 급진성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노사의 대립을 깊이 공감하면서도 문제를 구체화하지 않은 것은 시대적 제약과 함께 작가의 의식이 정확히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자신의 입장에 대한 적극적인 시도가 결여되어 생겨나는 스티븐의 인물적 결함은 다행히 작품이 유지해온 작가의 기대와 작품전체의 생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스티븐의 불행이 일선 산업현장에서 비롯된 사회적 요인이 아니라 개인적 환경 탓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집회가담거부 역시 노동운동 자체에 대한 불신보다는 레이첼과의 약속으로 비롯된 개인의 다짐의 성격이 강하다. 이것은 곧 플롯의 구조적인 한계를 애초에 설정해 놓은 디킨즈의 전략으로 보여진다.

또한 스티븐이 지니고 있는 성실성과 정직함의 미덕은 그의 결함을 덮어주는 또 다른 요인으로써 마지막 장면까지 독자에게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호소력이 있다. 디킨즈가 “스티븐을 통해 보여주는 이러한 자존적 의지와 양심적인 의지는 실제로 노동계급에 존재했던 속성이었으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기도 했다(Leavis, 1972, 273). 이는 『어려운 시절』에 투영된 디킨즈의 시각이 단순한 정의보다는 오히려 삶의 본질적인 면과 관계 있다는 점을 역설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소극적 성향은 노동문제에 대한 의식의 한계를 드러낸다기 보다는 사회의 총체적인 부조리를 인물의 내면적인 갈등을 통해 공감을 얻고 각성을 이루고자 했던 작가가 고심한 결과”이다(김현숙, 221).

한편, 디킨즈는 스티븐을 노동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으면서도 조심스런 방법으로 독자에게 노동문제의 본질을 일깨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소설의 말미에서 이루어지는 심경토로는 지금까지 개인적인 문제였던 노동문제와 정체성의 문제가 산업재해로 죽은 레이첼 여동생의 비참한 운명을 상기시키면서 다소나마 해소됨을 보여준다. 스티븐이 자신의 결백을 밝

히려고 돌아오다 폐광에 빠져 죽을 위험에 처한 장면에서 레이철에게 하는 한탄이다.

어린 여동생을 잊지 않았지, 레이철, 지금도 당신은 그 애를, 또 그 애에게 가까이 하고 있는 나도 잊지 않겠지, 불쌍하고 참을성 깊고 고생만 한 당신, 당신은 기억하지, 창가에 있는 그 애의 작은 의자에 앉아서 하루종일 그 애를 간호했던 일이나, 있을 필요도 없는 탁한 공기와 지치도록 일만 하던 사람들의 비참한 숙소 때문에 그 애가 어린 나이에 흉한 물골로 죽은 것을 기억하지. 엉망이야!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야!

"Thy little sister, Rachel, thou hast not forgot her. Thou'rt not like to forget her now, and me so nigh her. Thou know'st-poor, patient, suff'rin, dear - how thou didst work for her, seet'n all day long in her little chair at thy winder, and how she died, young and misshapen, awlung o' sickly air as had'n no need to be, an' awlung o'working people's miserable homes". A muddle!(244)

스티븐의 이러한 말은 당시 혹독한 삶을 강요당했던 노동자들의 고통을 사회전체의 운명으로 확대하여 진단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또한 스티븐은 노동자의 전형을 회복하고 자본가에 대항하여 민중의 고통을 항변하며 자본가의 자성을 촉구하는 능동성을 띠기도 한다. 슬랙브릿지 같은 노동조합 선동가에 의해 잘못 대변되고 있는 노동문제의 본질과 그들의 고충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스티븐이 자본가 바운더비를 찾아가 그의 의중을 강력히 전달하는 부분이다.

사장님, 문제를 만든 것은 그들이 아닙니다. 문제를 일으킨 게 그들은 아니에요. 제가 그들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서 고객을 빼앗지 않고 고객에게서 그들을 제거하려고 꿈꾼다는 건 쓸데없고 무망한 노릇입니다!

도시를 둘러보세요 - 길으로는 부유하게 보이지요 - 그 다음에는 여기서 살도록 끌려와서 실을 자거나 보풀을 세우거나 하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평생 같은 일만을 하면서 그럭저럭 생계를 꾸려 나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집에서 지내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연에 따라 얼마나 똑같이 살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공장이 매일 어떻게 굴러가는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종착지인 죽음에 이를 때까지 공장이 우리를 얼마나 혹사시키는지 살펴보세요...어째서 사장님들은 항상 옳고 노동자들은 항상 그를 뿐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성이라곤 조금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지 한번 따져 보세요. 해를 거듭하고 세대가 바뀔수록 어째서 이런 일이 점점 커졌고 광범위해졌으며 심해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 이걸 보고서도 엉망진창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Tis not by them the trouble's made, Sir. 'Tis not wi'them't commences. I ha' no favor for'em but 'tis hopeless and useless to dream o'takin them fro their trade, 'stead o'takin ththeir trade fro them!

Look around town-so rich as 'tis-and see the numbers o'people as has been broughten into bein heer, fur to weave, an' to card, an' to piece out a living', aw the same one way, somehows, 'twixt their cradles and their graves how you are awlus right, and how we are awlus wrong, and never had'n no reason in us sin ever we were born. Look how this ha'growen an' growen, Sir, bigger an'bigger, broader an'broader, harder an' harder, fro year to year, fro generation unto generation. How can look on 't, Sir, and fairly tell a man 'tis not a muddle?"(135)

스티븐의 이 말은 당시 노동자의 비참한 환경과 노동여건으로 인한 불안한 삶을 핵심적으로 드러낸다(Benn, 180). 비록 노동자인 그가 급진성을 띠는 혁명가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꾸밈없는 웅변술과 진지함으로 인해 민중의 대변인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아울러 노사간의 갈등을 인간의 선행과 각성으로 해소하려는 시도들과 함께 사회계급의 격차를 초월하려는 그의 의지는 매우 가치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런 그의 잠재적인 개혁의지는 자본주의의 형식과 합리성에 얽매일 경우 시도 자체가 무의미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코크타운 생성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할 소지가 있다. 이런 위험성을 경계하고자 디킨즈는 노동자가 주체가 된 움직임과 아울러 자본가들이 해야 할 일과 가진 자들의 자각을 동시에 요구한다. 스티븐이 그의 고용주인 바운더비를 찾아가 노사간에 깊이 패인 갈등의 본질을 지적하고 상호간의 이해와 도덕적 실천을 촉구하는 장면이다.

“사장님, 무식하고 천한 제가 이 모든 사태를 개선시킬 방도를 이 신사분께 말할 순 없지만 무엇이 개선시킬 수 없는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강경수단이 개선시키지는 못합니다. 승리를 거두고 정복해서는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한쪽만을 부당하게, 항상 그리고 영원히 옳다 하고 다른 한쪽은 부당하게, 항상 그리고 영원히 틀리다 해서는 사태를 결코, 결단코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또한 내버려둔다고 개선되지도 않을 겁니다. 모두 같은 생활을 하고 똑같이 엉망진창에 빠져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내버려둔다면 그들은 그들이고 사장님은 사장님이고, 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시꺼먼 세계가 놓여 있는 거지요. 그 세계는 이런 불행이 지속되는 만큼 길게 존재할 수도 있고 짧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많은 고통을 안고 있으면서도 자기네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서로를 감싸주는 사람들에게 - 제 좁은 소견으로는 이 신사분이 여행하면서 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만 -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그리고 기꺼이 다가가지 않으면 태양이 얼음으로 바뀌는 날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노동자들을 동력만으로만 생각하고 그들이 사랑이나 취미도 없는, 추억이나 취향도 없는, 지치거나 희망을 품을 영혼도 없는 산수 숫자

나 기계인양 다루어서는 -만사가 조용히 진행되면 노동자들은 아무 것도 원하지 않은 존재인양 그들을 부러먹고, 시끄러워지면 양반님들과 접촉하는 데 인간적인 감정이 부족하다고 그들을 비난해서는 - 지구가 끝장날 때까지도 사태가 개선될 수 없습니다. 사장님.”

“Sir, I canna, wi’ my little learning an’ my common way, tell the genelman what will better aw this but I can tell him what I know will never do ‘t. The strong hand will never do ‘t. Vict’ry and triumph will never do ‘t. Agreeing jur to mak one side unnat’rally awlus and for ever right, and toother side unnat’rally awlus and for ever wrong, will nver, never do ‘t. Nor yet lettin alone will never do ‘t. Let thousands upon thousands alone, aw leading the like lives and aw faw’en into the like muddle, and they will be as one, and yo will be as another, wi’a black unpassable world betwixt yo, just as long or shor a time as sitch-like misery can last. Not drawin nigh to fok, wi’ kindness and patience an’ cheery ways, that so draws nigh to one another in their monny troubles, and so cherishes one another in their distreses wi’ what they need themseln-like, I humbly believe, as no people the genelman ha’ seen in aw his travels can beat - will never do ‘t till th’ Sun turns t’ ice. Most o’aw, rating ‘em as so much Power, and reg’latin ‘em as if they was figures in a soom, or machines; wi’out loves and likens, wi’out memories and inclinations, wi’out souls to weary and souls to hope-when aw goes quiet, draggin on wi’ ‘em as if they’d nowt o’th’kind, and when aw goes onquiet, reproachin ‘em for their want o’ sitch humanly feelins in their dealins wi’ yo- this will never do ‘t, Sir, till God’s work is on made.”(133)

스티븐이 발산하는 이러한 진지함과 호소력 있는 어조는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여 개선된 삶을 이루려는 개혁가로서의 이미지로 손상이 없어 보인다. 디킨즈는 인간애와 연민, 그리고 이해와 관용이 인간에게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구성원의 친밀감과 의사소통의 유연함을 바탕으로 인간

성을 신뢰하여 이상적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Wall, 103). 이러한 이유에서 이제 “디킨즈의 개혁의지가 비록 막연한 감정적 인식이 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구조의 변화가 아닌 정신의 변화를 강조(Orwell, 1987, 33)”하였기 때문에 좀더 근본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다.

디킨즈는 코크타운을 통해 “사물화, 부속화 되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충분히 그려내었고”(Lodge, 79) “삶의 피폐화에 대한 불안한 분노”(House, 1960, 211)를 성공적으로 들추어내었다. 그 결과 노동운동의 물리적인 비참함, 불결함 뿐만 아니라 아울러 억제된 정신과 상상의 삶을 더욱 강조하게 된 것이다(Andrew, 71). 스티븐의 소극성이 암시하는 개혁성은 ‘어려운 시절’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민중적인 공유를 통해 지속적인 사회적 개량이 이루어져야 하는 작가의 의지를 뜻한다. 이는 이후 씨시와 곡마단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과업이며 남아있는 삶의 가능성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낙관적 비전에 다름 아니다.

V. 씨시와 곡마단원 : 인간다움의 실현

인간의 노동과 생활자체가 인간성의 발현을 북돋우는 생명력에 찬 것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디킨즈는 자본주의에 지배되지 않는 조화로운 산업조직을 지향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순수한 인간성과 도덕적 질서에 기초한 세계로서 디킨즈 자신이 인간의 창조적 덕성을 신뢰함을 뜻한다. 디킨즈는 이러한 가치에 위배되는 모든 요소들을 그 비판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월터 앨런(Walter Allen)은 “디킨즈가 사람들간의 온화한 감정의 흐름, 그리고 인간의 자연스런 친절함과 믿음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지체시키는 모든 사회 체제의 복합성을 공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170).

『어려운 시절』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 인간본성에 대한 이와 같은 작가의 믿음은 기계적인 합리성과 무기력한 일상을 상징하고 있는 코크타운의 황폐상과 확연한 대비를 이루어 더욱 더 부각된다. 이러한 그의 신뢰는 “모든 사람이 주위의 동료들과 단결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느낀다는 사실, 그리고 옳든 그르든 간에 모든 군중이 이러한 믿음을 진지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124) 더욱 더 간절해진다. 비록 급진적인 노동운동을 부정하는 것이지만 작가의 깊은 공감과 낙관적 미래의 확신은 비뚤어진 세대와 인식변화의 의지로 인간성 회복을 이루어야 하는 당위성으로 연결된다. 디킨즈는 노동자들과 민중들의 소외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도덕성이 전제된 열린 세계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이 작품을 통해 피력하고 있다. 그것은 곧 상상과 생명력에 기

반한 활력의 세계이며 인간의 내면적 덕성이 존중되고 창조적 활동이 자유로운 세계이다.

인간 영혼의 기저에서부터 각성을 촉구하는 이러한 디킨즈의 의식전환의 강조는 그가 『어려운 시절』에서 일관되게 추구하는 ‘상상’의 가치와 결부된다. 그 개념은 인간의 노동에 항상 동반되어야 하는 유희적 요소인 ‘놀이’의 개념으로 발전한다. 작가는 “인간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라도 여흥의 생동감과 유희를 통한 활력을 잃어버리면 본연의 인간다움은 불모화되어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명제를 폈다(Tompson, 406-407). 즉, 상상을 기반으로 한 인식의 전환과 인간성을 성취하여 온기가 넘치는 창조적 인간으로의 발전이 삶의 본질이라고 디킨즈는 생각한 것이다. 곡마단의 단장인 슬리어리(Sleary)의 유희강조 철학은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부각된다.

“선생님 모두와 악수하십시오. 우리 가난한 유랑민들을 불쾌히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재미있게 놀아야 합니다. 항상 공부만 할 수도 없고 항상 일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을 좋아하셔야 합니다. 현명한 일, 또한 친절한 일을 하십시오.”

“Thquire, thake handth, firht and latht! Don’t be croth with uth poor vagabondth. People mutht be amused. They can’t be alwayth a-learning, nor yet they can’t be alwayth a-working, they ain’t made for it. You ‘mutht’ have uth, Thquire.”(264)

『어려운 시절』에서 나타나는 놀이의 철학은 그레드그라인드의 공리주의 생활철학과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F. R. 리비스는 이와 같은 “상상과 놀이

의 의미를 창조적 생명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인간의 복합적인 욕구를 굶주리게 하는 어떤 일도 잔인하며 성질을 바꾸게 하며 불모화시키며 치명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972, 279). 이러한 놀이의 개념은 분명 노동자에게 시간과 여유를 주고 그들의 창의성을 촉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생명력을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체제 속에 존재하는 한 아무리 여흥과 휴식이 제공되더라도 그것은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김종철, 145). 디킨즈는 인간의 이러한 자발성을 억누르는 현상의 근본원인으로 공리주의와 산업체제의 기계적 물질화를 조장하는 빅토리아 문명 전체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병폐상에 대항하는 작가의 개혁의지는 그래드그라인드가 대표하는 의회나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을 가하는 급진적인 것이 아님은 앞서 살펴보았다. 오히려 그가 접근하는 바는 바로 사회문제를 관찰, 연구하고 그 한계를 파악하여 삶을 원점에서 바라보아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근본적 실천주의이다. 이런 작가의 의지는 『어려운 시절』에 담긴 심오한 휴머니즘과 공동체 의식을 통해 확인된다.

이러한 그의 내재적 개혁의지는 ‘사실’교육에 의해 부품으로 진락한 삶을 과감히 거부하고 감상과 상상을 통한 인간적인 삶을 회복하자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 디킨즈는 실제 『어려운 시절』이 작용하는 사회적 상황의 중심으로부터 외곽에 위치하면서 공간적 거리를 유지하며 상대적인 대안을 제공하는 곳을 취하게 된다(Holloway, 159). 『어려운 시절』에서 제시되는 이런 희망의 이미지는 바로 죽음, 폐쇄적 이미지의 코크타운을 견제하는 생명력의 곡마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실한 삶의 모형이 되는 곡마단장 슬리어리의 미덕과 어린소

너 씨시 등에서 발산되는 친절함과 인간적 활력은 작품의 본질적인 주제”를 이끌고 있다(Leavis, 1983, 256). 그랜드그라인드와 바운더비가 씨시의 부친을 찾아 곡마단원이 묵고 있는 술집에 왔을 때 그려진 그들의 모습이다.

두 세명의 잘생긴 젊은 여자들이 있었고, 두세명의 남편들, 두세명의 어머니들, 그리고 필요할 때 요정연기를 해내는 여덟내지 아홉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중 한 가족의 아버지가 커다란 막대기 끝에서 다른 가족의 아버지와 균형을 유지하면 세 번째 가족의 아버지가 토대를 이루어 두 아버지와 함께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통 위에서 춤을 추고, 병 위에서고 칼과 공을 받고, 세면기를 빙빙 돌리고... 어머니들은 모두 느슨한 철사와 팽팽한 밧줄 위에서 춤을 추고 병위에 서고...그들의 집안일은 조금도 정돈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들의 학식은 다 함해봐야 어떤 주제이든 초라한 글자하나 나올 뿐이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놀랄 만한 부드러움과 어린애다움이 있었고, 어떤 종류든 약삭빠른 교활한 일을 하기에는 특별한 부적합성이 있었으며, 서로서로 돕고 동정하려는 지칠 줄 모르는 열성이 있었다. 이것은 이 세상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든 그들이 지니고 있는 나날의 덕성만큼이나 종종 존경을 받을 만한 것이었고 또 언제나 관대하게 해석할 만한 것이었다.

There were two or three handsome young women among them, with their two or three husbands, and their two or three mothers, and their eight or nine little children, who did the fairy business when required. The father of one of the families was in the habit of balancing the father of another of the families on the top of a great pole; the father of a third family often made a pyramid of both those fathers could dance upon rolling casks, stand upon bottles, catch knives and balls, twirl hand-basins.... All the mother could dance, upon the slack wire and the tight-rope.... They all assumed to be mighty rakish and knowing, they were not very tidy in their private dresses, they were not at all orderly in their domestic arrangements, and the combined literature of the whole company would

have produced but a poor letter on any subject. Yet there was a remarkable gentleness and childishness about these people, a special inaptitude for any kind of sharp practice, and an untiring readiness to help and pity one another, deserving often of as much respect, and always of as much generous construction, as the every-day virtues of any class of people in the world.(31)

곡마단원의 다양한 기술과 순진함, 상부상조의 미덕이 조화된 바람직한 인간 삶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들 곡마단원들이 소유한 소박함과 부드러운 연대감은 디킨즈의 민중적 성향의 반영이기도 하다. R. 윌리엄즈(R. Williams, 1970)는 곡마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한다.

그들은 공통된 믿음의 시대의 도덕극의 인물들이 아니라, 개성과 성장이 역설적인 시대, 그리고 강조와 중재로서의 사랑과 친절같은 가장 소박한 인간적 자질들이 의도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시대의 극적 인물들이다. 이것은 그 장점과 약점 모두에 있어서, 그가 당시의 민중문화와 공유하고 있었던 감정의 구조인 것이다.

These are not the morality figures of an age of common belief, but the dramatic figures of an age in which individuality and growth are paradoxical and in which as an emphasis and an intervention, the simplest human qualities of love and kindness must be deliberately sustained. It is a structure of feeling, in its strengths and weaknesses, which he shares with the popular culture of his time.(54-55)

이들 곡마단원이 보여주는 덕성은 사회적 현실 밖에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으로 민중문화에 묻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곡마단

의 가치는 작품 구성상 스토리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활력을 주고 설득력 있는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곡마단으로 상징되는 인간애의 이미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지배층의 무의식적인 수용으로 그 온당함을 증명 받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예를 들어 바운더비는 “늦쇠로 된 트럼펫 같은 목소리”로 자수성가를 계속 떠벌리며 자랑을 늘어놓기 일쑤이다. 그런가 하면 “뜨내기나 줄타기 곡예조차 할 수 없어서 맨땅에서 춤을 추곤” 했지만 굳은 의지로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갔다고 자신의 성장기를 회고(14-15)한다. 이와 같은 비유적 이미지들은 피지배층의 내재한 인간적 가치가 계층을 막론하고 필수적으로 수반해야 할 사항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곧 산술적인 공리주의적 가치가 공동체적 인본주의를 토대로 할 때만 그 타당성을 얻게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역설적인 부분이다.

곡마단은 작가가 『어려운 시절』에서 내리는 사회의 병리현상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일차적인 구심점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씨시의 상상과 창조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코크타운의 불모성, 비극적 이미지와 일관되게 대립해오던 곡마단의 공동체적 이미지는 작품의 중반부로 접어들면서 작중인물들을 심판하는 주된 모티브로 작용함과 동시에 현실적인 모범상을 제시하여 디킨즈가 추구하던 도덕적 성숙의 버팀목이 된다. 곡마단이 생성해내는 생명력은 씨시로 실현되고 인간적 친절함과 연결되어 곡마단의 의미와 통하기 때문에(Leavis, 1972, 256) 씨시가 소유한 인간가치는 디킨즈가 추구한 큰 주제와 일맥상통 한다.

『어려운 시절』에서 압제화 되어있던 요소들은 타협점이 존재하지 않는 인물의 설정과 선·악의 이분법적 대립구조로 비롯된 갈등을 계기로 점차 가시화 된

다. 그 후 억압된 이들의 자아와 개혁 의지는 끝내 극단적 표출을 통해 작품의 새로운 국면을 가져온다. 완벽한 합리성으로 성사된 결혼생활을 참다못한 루이자가 폭우에 몸이 젖은 채 자신의 불행과 아버지의 교육과 철학관에 대해 거센 항변을 하는 모습이다.

“아버지, 한편으로는 잠시도 충족된 적이 없는 굶주림이나 갈증과, 다른 한편으로는 자와 숫자와 정의가 절대적으로 통하지 않는 영역에 대한 열렬한 갈망과 매순간 싸우며 저는 자라났어요.”...

“아버지, 저는 항상 불행했어요, 싸울 때마다 착한 천사를 악마라고 거부하고 가루로 뭉개야 했으니까요. 제가 배운 지식은 모르는 것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경멸하고 한심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었지요. 인생은 곧 끝날 것이고 다투는 수고와 노력들일 가치가 조금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담한 저의 마지막 수단이었지요.

“With a hunger and thirst upon me, father, which have never been for a moment appeased; with an ardent impulse towards some region where rules, and figures, and definitions were not quite absolute; I have grown up, battling every inch of my way.”..

“Father, I always knew it. In this strife I have almost repulsed and crushed my better angel into a demon. What I have learned has left me doubting, misbelieving, despising, regretting, what I have not learned; and my dismal resource has been to think that life would soon go by, and that nothing in it could be worth the pain and trouble of a contest.”(161)

이 장면 이후 그레드그라인드의 결정적인 태도변화는 이 소설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공리주의 교육과 함께 “루이자의 불행을 가중시킨 결혼은 하늘의 뜻대로 견고히 선 결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사랑과 인간애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과탄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G. B. Shaw, 44). 이러한 비극적 결혼을 누나에게 강권하였던 톰 역시 생기와 인간애가 결여된 ‘사실’ 교육의 대가를 치루게 된다. 공리주의 교육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기적 세계로 빠져들었던 그는 결국 건전한 사고방식이 차단 당한 결과의 희생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죄 없는 노동자 스티븐을 도둑으로 몰아세워 자신의 행각을 감추었던 하트하우스는 죄상이 밝혀진 후 톰과 함께 도망 다니기 급급하다. 인간적 요소를 전혀 교육받지 못했던 이 두 인물은 온전한 인생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채 근시안적인 탐욕에 젖어 해매이다 결국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그레드그라인드가 하트하우스와 바운더비와 달리 인간성회복의 가능성을 유지한 채 내면적 각성이후에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은 매우 희망적이다. 험프리 하우스(Humphry House, 1979, 45-46)는 “그레드그라인드의 인물설정을 공리주의 사조에 박식한 사람의 이성적 결합 만을 추적하기 위한 시도였으며 『어려운 시절』의 모든 부가적 환경은 그 결점을 추적하기 위해 그의 실패를 조장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의 주장은 비로소 그레드그라인드의 허점을 들추어내고 개선의 여지를 보임으로써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 기술한 “『어려운 시절』 인물들의 극적 변화들은 왜곡된 사회체계에 대항하는 씨시의 친진함이 발산하는 참된 창조력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영향력이 점증”하였기에 가능하였음은 자명하다(Leavis, 1972, 262).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계도의 암시와 영향력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바로 사회를 계량시키는 요소는 기술이 가져다주는 물질적 건설을 통한 혁명이 아니라 건설한 인간화교육을 통한 내면의 각성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작가의 신념으로 풀이된다. 그 이유는 그레드그라인드의 공리주의의 신조를 무너뜨린 계기가 어떤 다른 힘 때문이 아니라 씨시라는 한 순수한 소녀의 인간적 본성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씨시는 병석에 누워있는 그레드그라인드 여사를 정성스레 보살피 주며 그녀의 고통을 함께하는 착한 심성을 지닌 인물이다. 그리고 실종된 스티븐의 행방을 레이첼과 함께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실천적 의지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스티븐이 탄광에 갇혀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그를 구조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적극성을 보여 감동을 자아내게 하는 사람도 바로 씨시이다. 그녀의 이러한 영향력은 절망에 빠진 루이자에게도 발휘되기 시작한다. 비극적 결혼생활과 하트하우스와의 불륜, 동생의 타락 등으로 인해 지쳐버린 루이자는 씨시에게 다음과 같이 애원조로 심경을 토로한다.

루이자는 무릎을 꿇고 이 순회 서커스단원의 딸을 붙잡은 채 존경에 가까운 시선으로 올려보았다.

“나를 용서해줘!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 나의 절박한 궁지를 측은히 여기고 사랑이 깃든 네 가슴에 내 머리를 대고 있게 해줘!”

“오 그러세요!” 씨시가 외쳤다. “여기에 대세요, 아가씨”

She fell upon her knees, and clinging to this stroller's child looked up at her almost with veneration.

“Forgive me, pity me, help me! Have compassion on my great need, and let me lay this head of mine upon a loving heart!”

“O lay it here!” cried Sissy. “Lay it here, my dear.”(202)

타인에게 동정 받아야 할 씨시에게 루이자는 오히려 구원을 청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빛나간 이성과 과학적 사고방식은 오직 사랑과 인정에 의해서 치유가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다. 씨시의 덕성에서 기원한 이러한 잠재적인 개혁성향은 그릇된 사회제도를 조장하는 지배계급을 직접 찾아가 대면하는 능동성을 띠기도 한다. 루이자에 대한 연민과 애정으로 악한 하트하우스를 찾아가 준엄하게 꾸짖고 떠나가라는 그녀의 대담성은 악당의 존재가치를 상실케 한다. 루이자의 곤궁을 알게 된 씨시가 하트하우스를 찾아가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트하우스 씨.” 그를 완전히 패배시키는 부드러움과 단호함을 섞어서, 그리고 그를 꼼짝못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한데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그가 하게끔 되어 있다는 소박한 확신을 갖고 씨시가 말했다.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배상은 즉각 이곳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선생님이 저지른 잘못과 해악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른 방도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그것이 선생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유일한 보상책이라고 절대 확신합니다. 그게 대단한 일이라거나 충분하다는 게 아니라 부족하나마 필요한 일이라는 거지요. 따라서 내가 선생님께 이미 제시한 근거 이외에 다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선생님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사실을 아는 것도 아니지만, 오늘밤 여기를 떠나서 절대 돌아오지 말라고 부탁하는 바입니다.”

“Mr. Harthouse,” returned Sissy, with a blending of gentleness and steadiness that quite defeated him, and with a simple confidence in his being bound to do what she required, that held him at a singular disadvantage, “the only reparation that remains with you, is to leave here immediately and finally. I am quite sure that you can mitigate in no other way the wrong and harm you have done. I am quite sure that it is the only compensation you have left it in your power to make. I do not say that it is much, or that it is enough; but it is something, and it is necessary. Therefore, though without any other authority than I have given you, and

even without the knowledge of any other person than yourself and myself, I ask you to depart from this place tonight, under an obligation never to return to it.”(209)

정의감으로 무장한 씨시의 태도는 두려움이나 일체의 가식도 없이 악한을 물리치려 한다. 이러한 씨시에게서 받은 느낌에 대해 하트하우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그를 찾아온 사람의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게 말하는 태도와 허식 없는 용감함, 모든 술책을 제쳐두는 정직함, 찾아온 목적에 진지하고 조용하게 매달리면서 자신은 전혀 돌보지 않는 자세, 이 모든 것이 그가 쉽사리 한 약속을 믿는 씨시의 태도와 합해져서, 그로서는 경험해본 적도 없으며 보통 사용하는 수단은 통할 것 같지도 않은 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The child-like ingenuousness with which his visitor spoke, her modest fearlessness, her truthfulness which put all artifice aside, her entire forgetfulness of herself in her earnest quiet holding to the object with which she had come; all this, together with her reliance on his easily given promise presented something in which he was so inexperienced, and against which he knew any of his usual weapons would fall so powerless.(207)

인간적인 도덕성을 간직한 씨시의 이와 같은 행동에는 어떠한 수단도 통용될 수 없는 정직함이 서려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사랑과 관용의 인간애로 무장한 이와 같은 씨시의 덕성은 정의로운 사회를 대표하려는 위선적인 지배계층에 대항한 능동적인 심판자의 역할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소유욕에 사로잡혀 있는 배타적인 부르주아의 내면적 각성을 촉구하는 중재자이자 삶의 질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재설정 하려는 개혁가의 이미지이기도 하다. “백만명이 살고 스물 다섯 명 만이 길에서 죽는 산술적인 통계수치에 대해, 고통은 죽는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별 관심이 될 수 없다”(51)는 씨시의 자세는 공통된 미덕으로서의 인간애를 고수하는 것이다. 디킨즈는 도덕과 인간성을 간직한 채 소박하게 삶을 살아가는 곡마단원들과 씨시의 모습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할 참된 행복의 지향점이라 여긴다. 포프 헤네시 (Pope-Hennessy)는 『어려운 시절』에서 충실히 의도된 디킨즈의 이러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만약 디킨즈가 독자들로 하여금 산업주의의 경향이 인간의 상상력을 제거하고 자발적인 삶을 억누르며, 사람들을 공리주의의 어두운 세계로 가두어놓았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고자 하였다면 『어려운 시절』은 그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였다.

If Dickens's intention in this book was to make readers understand that the tendency of industrialism was to kill the imagination, suppress all spontaneous life, and force men and women to lead utilitarian existences in 'Hell-hole' surroundings, *Hard Times* may have fulfilled its purpose.(487)

『어려운 시절』에 나타나는 사랑과 동정심, 순진성 등의 가치들은 사회의 병폐를 계도하기 위한 조정자적인 역할을 하였다. 디킨즈는 공리주의의 폐단과 노동의 본질적인 위기를 실천적 도덕성과 인간애의 부재로 진단하였다. 그리하여 인간성 상실을 초래하고 비인간적인 산업조직을 양산한 빅토리아 문명에 대한 좀더 총체적이고 근원적 비판을 가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VI. 결 론

지금까지 산업사회와 공리주의가 만들어낸 사회적 병폐를 드러내어 19세기 영국 사회의 실상을 파헤친 디킨즈의 소설 『어려운 시절』을 작가의 내재적 개혁의지와 휴머니즘 구현이란 주제로 살펴보았다. 디킨즈는 각종 사회 악덕과 그 희생자들을 사실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물질화하고 세속화 되어가는 인간의 양상을 섬세하게 그려내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문제와 노사간의 갈등을 비중있게 다루어 당시 사회제도와 지배구조에 대한 심층적 분석의 일면을 제공하였다. 아울러 그는 사회의 지배적 사상과 제도에 의해 개인이 도덕성을 잃고 결국 타락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회복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인물들의 각성과 희망으로 마무리함으로써 밝은 삶의 비전을 열어놓았다.

디킨즈는 극도의 합리성과 이기주의로 현실을 왜곡하는 모든 사회악의 조건들을 인간의 내적가치 상실과 개인적 인식의 부재로 분석, 비판하고 있다. 『어려운 시절』에 반영된 이러한 비인간적 양상은 그래드그라인드를 포함한 작중 인물들의 창조적 인간애를 억제하였으며 결국 그들의 불행을 초래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것은 감성을 철저히 무시한 채 오로지 이성과 사실에 의해 모든 것을 일반화하는 공리주의의 왜곡된 교육에서 먼저 비롯되었음을 발견한다. 또한, 산업사회의 기계적 생활과 경쟁으로 인한 철저한 개인주의 사고방식과 금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의 물질화에서 파생되었음을 목격하였다.

디킨즈는 이러한 사회의 모순상을 다룸에 있어 단편적 제도개선이 인간을 구제

할 것이라는 급진성을 과감히 배격하고 개인의 인식변화로써 서서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작품을 통해 표명하고 있다. 이것은 곧 노동자 스티븐의 내면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의지로 나타나고 씨시의 강렬한 인식촉구에 의해 가시화 되었다. 노동운동에 가담하지 않고 사회를 개선하려는 스티븐의 의지는 결국 불합리한 사회체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죽음으로 희생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화합과 공존의 시도가 가져온 변화의 잠재성은 매우 크다. 그리고 씨시의 의지에 의해 촉발되었던 인간성 회복의 기운은 무기력한 작중인물들과 사회분위기에 커다란 생기와 변혁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같은 개개인의 인식변화와 내재적 개혁의지는 희망적인 삶의 갈망으로 이어졌고 작중인물들의 어긋난 믿음과 기존 철학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즉, 그레드그라인드나 루이자가 겪은 아픔과 성숙을 통한 깨달음은 곧바로 편협한 공리주의의 청산과 함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하는 긍정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씨시와 곡마단원들에 의해 주입되었던 삶의 온기와 활력은 많은 이들의 각성과 더불어 인간의 선한 본질을 회복하겠다는 굳센 의지로 발전했다. 그후 병든 사회를 개선하는 필수가치는 이제 깊은 인간애라는 고귀한 내적 가치임을 깨달을 수 있었고 개선된 사회를 향한 희망을 모색할 수 있었다. 빅토리아 시대의 모순을 공격하고 민중의 활력을 열망했던 디킨즈는 『어려운 시절』에서 이와 같은 낙관적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삶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는 근원적 힘은 단순한 통계로 분석되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간의 깊은 신뢰와 공감에서 비롯된다.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노사간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왜곡된 이념으로 사회가 분열

되는 어려운 시기에 디킨즈는 인간의 가치를 통한 내적 개선의지를 구현하여 바람직한 사회통합의 길을 진실된 마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대다수 디킨즈의 작품이 대중성을 우선시하여 독자의 인기를 얻기 위해 쓰여진 것에 비해 『어려운 시절』은 심각한 주제에도 불구하고 현실비판의 강도를 차별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상적 체계를 뒤엎는 급진적인 성향까지 보이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것은 분명 설새없이 변화하는 불안정한 현실속에서 밑바닥을 헤매이며 성장했던 디킨즈의 어린시절이 가져다 준 뼈아픈 현실의 반영이며 시련과 고통의 악순환 속에서 낙관적인 사회변혁을 바랬던 그의 소망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물화되어 가는 사회가 가치관의 파괴와 재정립의 혼돈속에서 지향점을 잃고 있을 때 인간 중심적 사회상을 구현한 이 작품은 자연적인 인간본성과 온정의 가치를 깊이있게 전달하고 대화와 타협, 그리고 참여적 의사소통을 통한 진정한 공동체의 발현을 이룸으로써 비로소 참된 인간의 모습을 제시했다고 생각된다.

- 인용 문헌 -

- 김종철, 『어려운 시절의 민중성』, 백낙청 편, 『서구리얼리즘 소설연구』 서울: 창작과비평사, 1982,
- 김현숙, 『디킨즈 소설의 대중성과 예술성』 서울: 한신문화사. 1996.
- 백낙청, 『디킨즈 소설 속의 빅토리아조 신사』 19세기 영국소설연구, 한국영어영문학회 편(서울: 민음사, 1981 참조)
- 장남수. 『어려운 시절』. 서울; 푸른산, 1989. 개정판 1995.
- _____. 『어려운 시절과 공리주의의 문제』 영미문학연구, 안과밖 제7호, 영미문학연구회, 창작과비평사, 1999.
- Hauser, Arnold.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 현대편』 백낙청, 엮무웅, 공역, 서울: 창작과비평사, 1974.
- Allen, Walter. *The English Novel*, Harmondsworth; Penguin Books Inc., 1954.
- Andrews, Malcolm. *Dickens on England and the English*. New York; Barnes & Noble, 1979.
- Arnold, Matthew. *Prose of the Victorian Period*. Ed W.E Buckler. Houghton Mifflin College press, 1958.
- Babington. Thomas. "Macanly, Southey's Colloquie," in *Prose of the Victorian Perio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58.
- Barnard, Robert. *Imagery and Theme in the Novels of Dickens*. New York: Humanities Press, 1974.
- Benn, J. Miriam. "A Landscape with Figures; Characterization and Expression in *Hard Times*." *Dickens Studies Annual*. Vol. 1.
- Carlyle, Thomas. *From Past & Present, in Prose of the Victorian Period*, Ed W. E Buckler, Houghton Mifflin College press, 1958.
- Craig, David "Hard Times and the Condition of England," *The Real*

- Foundations: Literature and Social Change*,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74.
- Dickens, Charles. *The Letters of Charles Dickens* vol.II. Ed. Walter Dexter. Bloomsbury: The Nonesuch Press 1938.
- _____. "On Strike," *Charles Dickens: A December Vision and Other Thoughtful Writings*. Ed. Neil Philip and Victor Neuburg. New York: Continuum, 1987.
- _____. *Hard Times*, Harmondsworth: Penguin, 1854. rpt. 1994.
- Ford, George H. and Lane, Lauriat Jr. Ed. *The Dickens Critics*. 1961: rpt.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1972.
- Gissing, George. *Dickens: A Critical Study*. London: The Gresham Publishing Company, 1903.
- Gold, Joseph. *Charles Dickens: Radical Moralists*,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1972.
- Holloway, John. "Hard Times; and a History and a Criticism." *Dickens and the Twentieth Century*. Ed. John Gross. and Gabriel Pearson.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62.
- House, Humphry. *The Dickens World*. 1941: rpt. London: Oxford Univ. Press, 1960.
- _____. "A Novel of Sociological Argument" *Hard Times, Great Expectations and Our Mutual Friend*. Ed. Norman Page. Basingstoke, London: MacMillan, 1979.
- James, Henry. "The Limitations of Dickens." *The Dickens Critics*. Ed. George H. Ford and Lauriat Lane, Jr.
- Kettle, Arnold. *Introduction to the English Novel*, Jackson, Charles Dickens: The Progress of A Radical, Orwell, Decline of the English Murder and Other Essays, Lindsay, Charles Dickens: A Biographical and Critical Study. 1953.

- _____. "The Early Victorian Social-Problem Novel," in *The New Pelican Guide to English Literature*. Ed. B. Ford Harmondsworth: Penguin Books. vol 6. 1982.
- Leavis, F. R. and Q. D. Leavis. *Dickens the Novelist*. 1970; rpt.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2.
- _____, F. R. *The Great Tradition*. 1948 rpt,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80.
- _____, F. R. and Q. D. Leavis. "How We Must Read Great Expectations." *Dickens the Novelist*. Ed. F. R. And Q. D Leavi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Press. 1983.
- Lodge, David. "The Rhetoric of Hard Times" *Hard Times, Great Expectations and Our Mutual Friend*. Ed. Norman Page. Basingstoke and London: MacMillan Press Ltd., 1979.
- Oliphant, Margaret. "Charles Dickens," *Blackwood's Edinburgh Magazine*, L XXVII. CCCCXXIV. April, 1855. recited in *Nineteenth Century Literature Criticism*. Ed. Laurie Lanzen Harris. Detroit, Michigan: Gale Research CompanyBook Tower, 1983.
- Orwell, George. *Charles Dickens by Stephen Wall*, Ed, Harmondsworth; Penguin Books Inc. 1970.
- _____. *Essay on Dickens in Critical Essay*. Dickens's Hard Times; The Romance as Radical Literature. Robert E. Lougy. Yale Univ press. 1987.
- Page, Norman. *Dickens: Hard Times, Great Expectations and Our Mutual Friend*. London and Basingstoke: The Macmillan Press Ltd., 1979.
- Peters, M. and Marshall, J. *Individualism and Community: Education and Social Policy in the Post-modern Condition*, Falmer Press. 1996.
- Phillips, Walter C. *Dickens, Reade, and Collins : Sensation Novelist*.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19.
- Pope-Hennessy, Una. *Charles Dicken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45.

- Ruskin, John. "Unto this Last," August, 1860, ii, 159. *Cornhill Magazine*.
 Ford and Lane, Ed. *The Dickens Critics*. 1961: rpt.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1972.
- Shaw, G. B. "Dicken's Portrait of England." *Hard Times, Great Expectations
 and Our Mutual Friend*. Ed. Norman Page. Basingstoke and London:
 MacMillan Press, 1979.
- Simpson, Richard. "The Limitations of Dickens." Norman Page. Ed. *Rambler 1854*.
- Sussman, Herbert. *Victorian and the Machine; the Literary Response to
 Technology*. Cambridge, Mass; Havard Univ Press. 1968.
- Taine, Hippolyte. "*The Two Classes of Characters in Hard Times*", *Hard
 Times*, Ed. George and Sylvere Monod. New York: W.W. Norton and
 Company, 1968.
- Thompson, E. P.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New York:
 Vintage Books, 1963.
- Trollope, Anthony. *The Warden*. New York; Magnum-Lancer Books, 1968.
- Wall, Stephen. *Charles Dickens*, Ed, Harmondsworth; Penguin Books Inc.
 1970.
- Williams, Raymond, *Culture and Society 1780-1950*.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58.
- _____. *The English Novel from Dickens to Lawrence*, London; chatto &
 Windus, 1970.
- _____. *The Country and the City*. 1973; rpt. St. Albans: Paladin, 1975.

■ Abstract

Intended Reform in *Hard Times*

Kim, Ki Mok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novel *Hard Times* as Dickens's humanistic attempt at social reform of his contemporary utilitarian thinking. Dickens believed the root cause of social evils was not in social systems or governmental regulations, but in a lack of humane treatment to one another in society. He did not advocate any immediate political radicalism in *Hard Times*, but rather maintained hope and opened a new vision for a better life through highlighting the inward value of people. A close character analysis reveals what happens to the characters who have experienced utter degradation when they were repressed by misguided materialistic beliefs, and how this in turn influenced their morality and social consciousness.

Utilitarianism, the most liberal idea of the Victorian age, fostered the strict philosophical thoughts of mechanical value, which only cares for hard facts and reasons. Dickens attacks this materialistic trend that produced a cold-hearted and distorted human view. The industrial revolution, combined with the laissez-faire economic doctrine, also is presented as another major target for criticism in *Hard Times*. The author harshly condemned the heartlessness of capitalism and selfishness of the bourgeoisie which

aggravated the alienation of industrial workers. By creating Gradgrind and Stephen Blackpool, Dickens not only symbolizes the sterile thinking of utilitarian reformers, but also criticizes the governmental system which gave rise to torturing the working class.

Dickens clearly demonstrates that inhumanity provoked by nineteenth century materialism can only be dealt with by changing man's inward value. He sought to develop this vision through appealing to human feelings, solidarity and spiritual life which shown in the circus troupe and Sissy. The human qualities of innocence and spontaneity, which Sissy shared with the circus people, served to provide convincing evidence for Dickens's human reform. This kind of belief is deployed through his characters to evoke and sustain the animating quality of human life in *Hard Times*.

The introductory section gives a brief overview of Dickens and his works. Chapter two describe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Victorian age. The next two chapters explore Dickens's symbolic patterns and unique conditions of his intended reform, represented in such characters as Gradgrind and Stephen Blackpool. The fourth chapter looks at Dickens's most obvious and sustained humanistic transformation through demonstrating ideal lifestyle of Sissy and the characters in the circus troupe. This study concludes by suggesting that Dickens played a certain part in opening a new vision for a better life in a mechanical age by stressing humane interactions and that he should be regarded alongside of his contemporaries who are acknowledged as pro-humanists.